

조선후기 사의당의 위치와 건축적 특징에 대한 추론

A Study on the Location and Architectural Features of Saudang in the Late Joseon Period

박 혜 정

Park, Hye-Jung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조 재 모*

Cho, Jae-Mo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ocation and space configuration of Saudang(四宜堂), which is a house in the late Joseon period. Saudang was built by Hong Man-hoe(洪萬恢), the last son of Princess Jeongmyeong(貞明公主), was used as a house for Pungsan Hong clan(豊山 洪氏) for approximately 150 years, and is now defunct. However, the existence was estimated through *Saudang-ji*(『四宜堂志』) compiled by Gwan-am Hong Gyeong-mo(冠巖 洪敬謨) in 1824.

Based on the mention that “Saudang was located in Hundo-bang(薰陶坊) of Ihyeon-dong(梨峴洞)” and the literature referring to “the site of Myeongryegung Palace(明禮宮)”, this study estimated the location of Saudang. Maps and photographic data in the modern age enabled us to examine the utilization cases of medium- and large-sized lots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Saudang with a focus on words to clarify the detailed explanation of Saudang mentioned in the literature and spatial relationship.

주제어 : 사의당, 사의당지, 홍경모, 정명공주, 명례궁, 주한 중국대사관

Keywords : Saudang, Saudang-ji, Hong Gyeong-mo, Princess Jeongmyeong, Myeongryegung Palac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Korea

1. 서 론

사의당(四宜堂)은 한성부 남부에 1671년(현종 12) 3월에 지어진 풍산 홍씨(豊山 洪氏)¹⁾ 가택으로,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²⁾가 인조에게 사여 받은 땅에 홍만회(洪萬恢, 1643~1709)³⁾가 건립한 집이다.

* Corresponding Author : zozemo@knu.ac.kr

1) 풍산 홍씨(豊山 洪氏)는 경상북도 안동 풍산(豊山)을 본관으로 하고, 고려 고종 때 국학직학(國學直學)을 지낸 홍지경(洪之慶)을 시조로 하며, 조선 후기에 세도가로 유명세를 떨쳤던 가문이다.

2)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는 선조와 계비인 인목대비의 첫째 딸이다.

3) 홍만회(洪萬恢, 1643~1709, 판결사부군)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정명공주와 홍주원(洪柱元)의 막내아들이며 사의당을 건립한 인물이다.

정명공주는 83세까지 살았던 인물로 선조의 딸로 태어나 숙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6대 국왕과 시대를 함께하였다. 인조는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를 인조반정의 명분으로 삼았으므로 인목대비와 정명공주를 각듯이 대우했고,⁴⁾ 그런 이유로 인조는 정명공주에게 많은 재산을 사여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이책(李策)의 집터였다. 정명공주는 이책(李策)의 집을 막내아들 홍만회에게 이급(移給)해 주었고, 그 자리에는 사의당이 들어섰다.

사의당은 홍만회가 건립한 이래로 홍중성-홍진보-홍양호-홍낙원-홍경모에게로 계승되었고,⁵⁾ 홍만회의 6세

4) 신명호, 『화정, 정명공주』, 생각정거장, 2015, 234쪽

5) 사의당 계승 연혁: 홍만회(洪萬恢) → 홍중성(洪重聖) → 홍진보(洪鎭輔) → 홍양호(양한, 洪良浩) → 홍낙원(희원, 洪樂源) → 홍경모(洪敬謨)

손인 관암 홍경모(冠巖 洪敬謨, 1774~1776)가 사의당 계승 과정과 당시의 사의당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四宜堂志」를 남겼다.

「四宜堂志」에서는 사의당이 건립된 이후로 약 150년간 유지되면서 변모된 과정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거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사료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 상류 주택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으로 치중되어 있어 한성부 내의 유구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 사의당은 조선후기 상류 주택이 갖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며, 더욱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료가 있어 그 가치가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관암 홍경모의 「四宜堂志」를 바탕으로 사의당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고 공간 구성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사료와 선행연구

2-1. 「四宜堂志」

관암 홍경모(冠巖 洪敬謨)⁶⁾는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그중 시문집으로 두 편의 「四宜堂志」를 남겼다. 하나는 『시유집(始有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7년 후 관암전서(冠巖全書)의 『운석외사(耘石外史)』⁷⁾에 편집본으로 재수록되었다.

『시유집』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간행 연대는 1817년으로 추정된다.⁸⁾ 전체 크기가 가로 31.2cm, 세로 18.0cm로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책에 「四宜堂志」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관암전서(冠巖全書)는 편집본으로 『운석외사』가 속해 있는데, 『운석외사』는 「외사전편」, 「외사후편」, 「외사속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외사전편」은 총 18권이며, 1~9책이 수록되어 있고 「四宜堂志」는 9책에 속해 있다. 전체 크기는 세로 30.9cm, 가로 19.0cm로 간행 연도는 1824년으로 추정된다.⁹⁾

6) 관암 홍경모(冠巖 洪敬謨, 1774~1851)는 조선후기 문신으로 풍산 홍씨 18세손이며, 현종 때 대사헌을 거쳐 이조·예조·호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저서에는 『관암전서(冠巖全書)』·『관암외사(外史)』·『관암총사(叢史)』·『관암유사(遊史)』, 편서(編書)로는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대동장고(大東掌巧)』·『기사지(耆社志)』가 있다.

7) 『운석외사(耘石外史)』는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前編」(이하 「외사전편」),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後編」(이하 「외사후편」),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續編」(이하 「외사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사의당의 건립 연도는 1671년이다. 『시유집』의 「四宜堂志」에서 건립 후 146년이 지났다는 내용으로 1817년으로 추정된다. (原敍第一 8-3; 歷年則今爲一百四十六年矣)

9) 사의당의 건립 연도는 1671년이다. 『운석외사』의 「四宜堂志」에서 건립 후 153년이 지났다는 내용으로 1824년으로 추정된다. (原敍第一 9-5;

두 「四宜堂志」는 서술하고 있는 연도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나중에 쓰인 『운석외사』의 「四宜堂志」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四宜堂志」는 사의당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홍주원에서 홍경모로 이어지는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¹⁰⁾ 총 7장이며, 原敍·堂宇·形勝·眺望·花石·書畫·器玩의 순서대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四宜堂志」 구성

차례	내용
原敍	사의당 전체를 개괄한 서문
堂宇	각 건물 구성 및 연혁을 상량문과 함께 설명
形勝	사의당의 터에 대한 풍수를 다룸
眺望	사의당에서 볼 수 있는 조망을 설명
花石	사의당에 있는 나무와 괴석을 기록
書畫	홍양호가 수집한 서적을 기록하고 글과 함께 정리
器玩	사의당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과, 홍양호가 소장한 물품을 기록

原敍第一에는 사의당이 계승되어 온 약 150년간의 연혁이 수록되어 있는데, 17세기의 주택인 사의당이 시대에 맞춰 변화된 모습이 담겨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堂宇第二에서는 사의당의 각 건물을 기술한 내용이 담겨 있어 건축 구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분석

사의당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관암 홍경모의 저서와 가문 의식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후에 「四宜堂志」를 기반으로 한 건축 구성 및 조경을 추정하는 형식의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이군선은 관암 홍경모의 저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논문(2003)에서 저서의 일부로 「四宜堂志」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두 번째 논문(2005)에서는 홍경모의 가문 의식을 통하여 「四宜堂志」가 쓰인 배경을 설명하였다. 두 논문은 「四宜堂志」의 일부를 발췌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홍경모가 많은 저서를 쓸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사의당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종목의 논문(2008)은 사의당을 원 주제로 내세워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큰 가치가 있다. 귀거래 시대의 새로운 주거 양식과 정보와 정리의 시대 18세기라는 표현으로 「四宜堂志」를 설명하였으며, 『사의당지, 우리 집

歷年則今爲一百五十有三年矣)

10)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한국학논집(현 동아시아 문화연구), 39집, 2005.12, 95쪽

표 2. 「四宜堂志」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 목록

저자명	자료명	발행사항	연도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한국학논집(현 동아시아 문화연구), 39집, 93~115쪽	2005.12.
이종묵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한문학보, 19집, 567~592쪽	2008
이종묵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9
유가현·성종상	조선후기 사가원림의 해석과 재현 -남양홍씨 사의당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3.
유가현·성종상	조선후기의 문헌 『사의당지』에 나타난 고택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53집, 97~123쪽	2011.3.
신상섭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의당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2호, 19~27쪽	2011.6.
이종묵	사의당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문화공간으로서의 한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2

을 말한다』(2009)¹¹⁾라는 책을 통하여 원서 전체에 대한 해석본을 내놓았다.

이후 유가현·성종상, 신상섭이 차례로 사의당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四宜堂志」의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각자의 해석에 따른 사의당 구성을 추론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유가현·성종상의 첫 번째 논문(2010)에서는 사의당의 구성마다 풍수지리와 원림 공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며, 사의당 구성 추론뿐만 아니라 원림 문화의 해석과 추정 원림 도해까지 들어 있어 사의당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발전시킨 논문(2011)에서는 사의당의 입지 상황 분석과 건축물 공간 배치 및 공간 구조 파악, 분재, 화계별 식재 수준의 분류 및 정리를 볼 수 있으며, 개선된 사의당의 추정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상섭의 논문(2011)에서는 「四宜堂志」를 토지 이용과 조경 문화에 관한 전반을 추적할 수 있는 독보적인 사료로 칭하였으며, 각 구성별로 조경 문화에 대한 해석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상섭의 추정안에서는 화원 중심으로 개념도를 구성하였는데, 건물의 구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그림은 유가현·성종상의 두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추정안이다.

<그림 1>은 사의당의 선행연구 중 처음으로 사의당의 배치를 추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각 건물의 배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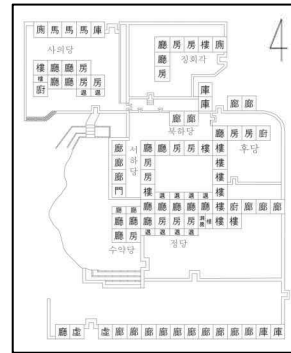


그림 1. 사의당 도형 [유가현·성종상(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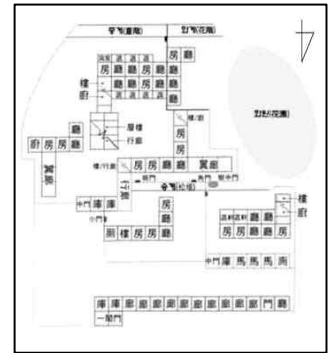


그림 2. 간잡이그림 [유가현·성종상(2011)]

에 대한 기반이 되었으며, 건물 영역에 담장과 문 등의 배치까지 추정되어 있다. 다만, 북향인 사의당이 남향으로 표현된 점과, 건물 간의 간섭이 고려되지 않은 배치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림 2>는 앞의 추정안에서 잘못 표현된 좌향을 북향으로 바로잡았으며, 정당 영역이라 볼 수 있는 하당과 후당 등의 배치를 봤을 때 건물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건물의 공간 추정에서는 기존의 추정안보다 온돌과 마루 등의 구성이 당시 상류 주택의 전형을 잘 따랐다는 점에서 개선된 점이 보이지만, 각각의 건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요철은 구조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四宜堂志」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더불어 사의당의 공간 구성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추정안에 있어 건축 구조적인 제안이 불분명했고, 또한 각 건물의 배치와 특정 용어의 해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 구성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료에서 사용한 용어에 주목하여 해석하고자 하며, 앞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의당의 위치를 함께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의당의 원형에 다가가고자 하며, 특히 건축 구조 입장에서 하나의 건물로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四宜堂의 역사와 입지

3-1. 사의당 건립 이전 집터의 연혁: 명례궁 시절

사의당은 집터와 가대를 합쳐 530칸으로¹²⁾ 당시의 상류 주택 중에서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지 확보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에 대하여 「四宜堂志」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얻을

11) 홍경모,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18세기 사대부가의 주거 문화』, 이종묵 역, 휴머니스트, 2009; 역자 이종묵의 의견이 반영된 책이기 때문에 이종묵의 선행연구로 표기하였다.

12)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6; 家舍竝爲五百三十間

수 있었다. 다음은 「四宜堂志」의 堂宇第二의 첫 구절이다.

집은 한성의 남부에 있고, 방은 훈도라 불리며, 동은 이현이라 불렀다. 목석산 아래 기슭에 있으며, 곧 명례궁 옛터이다.¹³⁾

문헌에 따르면 사의당은 한성의 남쪽, 남산 아래에 있는 훈도방 이현동에 위치하였고, 그곳은 명례궁의 옛터였다. 훈도방(薰陶坊)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남부 11방 중의 하나였으며, 이현(泥峴)은 진고개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지명으로 오늘날의 충무로2가 중국대사관 뒤편에서 세종호텔 뒷길에 이르는 고개를 칭한다.¹⁴⁾ 다음 <그림 3>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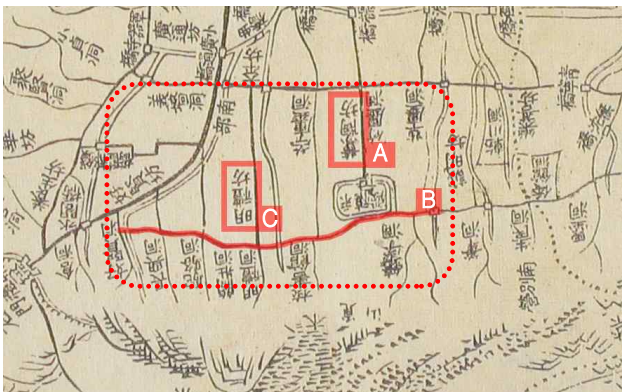


그림 3.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부분, 편집)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751년 제작)
A. 훈도방(薰陶坊) / B. 이현(泥峴): 진고개길 / C. 명례방(明禮坊)

명례궁(明禮宮)은 조선후기의 1사4궁 중 하나로 경운궁의 별칭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명례방에 있었던 인목대비의 친가가 그 시원이다. 명례방(明禮坊)은 훈도방과 같이 한성부 남부 11방 중의 하나였는데,¹⁵⁾ <그림 3>의 C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 인목대비의 친정집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례궁, 명례 본궁, 신분궁 등으로 불렸다.¹⁶⁾

「한양도」에서 각 지명을 통해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훈도방 이현동과 명례방의 범위가 상당히 겹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명례궁과 사의당이 같은 위치였다면 명례궁의 옛터가 어떻게 사의당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6: 宅在漢城之南部坊曰薰陶洞曰泥峴即木覓山下麓而明禮宮舊基也

14) 훈도방(薰陶坊), 이현(泥峴): 충무로2가가 해당 [출처: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15) 명례방(明禮坊): 명동1·2가, 충무로1가가 해당 (출처: 위의 책)

16) 신명호, 「17세기 초반 명례궁의 연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67집, 2013.12, 255쪽

명례방은 인목대비의 친정집이 위치했던 곳으로, 인목대비의 친정아버지 김계남(金槲男, 1562~1613)¹⁷⁾의 소유였으며, 1602년 인목대비 가례 이후 서제소(書題所)를 설치하면서부터 명례궁으로 불렸다. 1613년 이이첨(李爾瞻) 등으로부터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는 무고를 받았던 사건인 계축옥사(癸丑獄事)를 겪으면서 명례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집과 재산은 관에 몰수되었고, 김계남과 세 아들은 모두 사사(賜死)되었으며, 영창대군 또한 강화도로 유배된 후 사형당하였다. 다행히 김래(金來)의 아내 초계 정씨(草溪 鄭氏)와 두 아들 김천석(金天錫)¹⁸⁾, 김군석(金君錫)은 목숨을 부지하였고, 원주 영원사에서 10년 동안 남의 눈을 피하여 자랐다.¹⁹⁾

표 3. 연안 김씨(延安金氏) 계보

13세	김계남 1562~1613	광주 노씨 ? ~1637			
14세	김래 1576~1613	女 1580~?	인목대비 1584~1632	김규 1596~1613	김선 1599~1614
	초계정씨 夫	심정세 妻	선조 계비	달성서씨 夫	
15세			정명공주 1603~1685	영창대군 1606~1614	
	김천석 1601~1672	김군석 ?	女 김광찬 妻	女 최극량 妻	女 이후연 妻
16세	김지 1643~?	김심 ?	김수향 1629~1689		

1618년 10월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盧氏, ?~1637)²⁰⁾가 제주도로 유배당하자 빈집이 된 명례궁은 광해군의 측근 궁녀였던 김개시(金介屎)의 조카사위 정몽필(鄭夢弼)이 사옥(私獄)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장소로 변질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집과 재산은 환급되었지만 재산 관리를 맡아주었던 김계남이 사사되었기 때문에 서제소는 경운궁 측조당으로 이전되었다.²¹⁾ 이후 사의당이 건립되기까지의 이력은 분명하지 않다.

17) 김계남(金槲男, 1562~1613, 영돈녕부사, 연흥부원군)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둘째 딸인 인목대비가 왕비로 책봉되면서 영돈녕부사에 연흥부원군으로 봉해진 인물이다.

18) 김천석(金天錫, 1601~1672, 돈녕부참봉)은 조선후기의 문신이며, 계축옥사 때 동생 김군석(金君錫)과 함께 살아남았다. 10년 동안 승려로 살았으며, 인조반정 이후 돈녕부참봉에 특채되어 김계남의 사당을 모셨다.

19)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5년 6월 1일 무자, 7번째 기사 / 원주 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내 「지명유래」

20) 광주 노씨[光州盧氏, ?~1637, 광산부부인(光山府夫人)]는 노계(盧洵)의 딸이며, 인목대비의 어머니이다.

21) 신명호, 앞의 글, 2013.12, 268~269쪽

인조반정이 일어난 해인 1623년, 당시 2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는 홍주원(洪柱元, 1606~1672)²²⁾과 혼례를 올렸다. 정명공주를 극진히 비호해 주었던 인조는 안국동에 정명공주방(貞明公主房)²³⁾이라 불리는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살림살이와 재산을 주었다.²⁴⁾ 정명공주는 정명공주방 외에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땅이 있었는데, 이를 흥만회에게 이급해 주었고 사의당을 건립하였다. 『四宜堂志』에 따르면 이 땅은 사의당이 건립되기 이전에 이책(李策)이라는 인물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책(李策, 1541~?)²⁵⁾은 태종 이방원의 6자인 근녕군 이농(李儆)의 6세손으로 『선원록』에 등장하는 왕실의 인물이었으며, 43세라는 늦은 나이에 검사복에 합격하여 선조와 광해군 때에 무관과 훈련도정의 벼슬을 지낸 인물이었다. 궁방의 가사(家舍) 역할을 하던 집이 왕실이 아닌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책(李策)은 같은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례궁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듯하다.

이책(李策)으로부터의 매입 시기는 『시유집』과 『운석외사』에 속한 두 권의 『四宜堂志』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다.

선묘조에 이책(李策)에게 매입하여 정명공주에게 사여하였고, 공주가 판결사 부군(즉, 흥만회: 필자주)에게 이급하였다.²⁶⁾

인묘조에 이책(李策)에게 매입하여 정명공주에게 사여하였고, 공주가 판결사 부군(즉, 흥만회: 필자주)에게 이급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집으로써 살게 하였다. 이에 신해년 3월에 집을 지었다.²⁷⁾

먼저, 『시유집』의 『四宜堂志』에 따르면 이책(李策)에게 사의당지를 매입했던 시기는 선조의 재위 기간이었다. 그렇다면, 정명공주에게 이책(李策)의 집을 사여한 기간은 정명공주가 태어난 1603년부터 선조가 사망한 1608년까지 6년 사이였을 것이며, 이때 이책은 60대 중후반의 나

이었다.

반면, 이 시기는 명례방의 친정집이 명례궁으로 불리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명례궁과 명례궁의 옛터였던 사의당의 부지가 같이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광산부부인[노씨(盧氏)]의 묘지명의 내용²⁸⁾을 보면 인목대비 가례 이전 김제남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목대비는 가례 이후 많은 재산을 사여 받았는데, 명례궁에서 관리하였으며,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의 재산 또한 명례궁에서 관리를 맡고 있었다.²⁹⁾ 그렇다면 선조에게 사여 받은 이책(李策)의 가택 역시 명례궁에서 관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운석외사』의 『四宜堂志』에 따르면 이책(李策)에게 사의당지를 매입했던 시기는 인조의 재위 기간이다. 그렇다면,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명례궁은 환급되었지만 유배에서 풀려난 노씨(盧氏)가 가택을 이어나갈 능력이 없어 팔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명공주가 인목대비와 인조의 극진한 비호를 받았던 때와 달리, 1632년 인목대비의 사망 이후 인조의 정명공주에 대한 태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³⁰⁾ 이책(李策)의 가택을 매입하여 정명공주에게 사여했을 시기는 1632년 이전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1623~1632년 사이 빈집이 된 명례방의 친정집을 이책(李策)이 매입하였다는 말인데, 이책(李策)이 1623년에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의 나이는 이미 83세이다.

두 시기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책(李策)이 80대였던 인조의 재위 기간보다 60대였던 선조의 재위 기간에 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정명공주는 6세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공주 또는 옹주는 8살 전후로 봉작되는 것이 관행이었다.³¹⁾ 정명공주는 2살 때 외조부 김제남이 죽친위 김계남(金季男)에게 정명공주방의 장무를 맡겼다는 등의 기록³²⁾을 통해 상당히 이른 나이에 봉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례없는 일인 만큼 선조에게 이책

22) 홍주원(洪柱元, 1606~1672, 영안위)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정명공주와 혼인 후 영안위에 봉해졌다.

23) 정명공주방(貞明公主房)은 정명공주의 신혼집으로 안국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영안위방(永安尉房)이라고도 불렸다.

24) 신명호, 앞의 책, 2015, 261쪽

25) 이책(李策, 1541~?)은 태종의 6자인 이농의 6세손으로 43세의 늦은 나이에 검사복에 합격한 인물이다.

26)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8-4: 宣廟朝買於李策賜與於 - 貞明公主而公主移給判決事府君治第以居之

27)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6: 仁廟朝買於李策賜與於貞明公主而公主移給判決事府君使治第以居之適於辛亥三月

28) 신명호, 『조선왕비실록: 숨겨진 절반의 역사』, 역사의아침, 2007, 220~221쪽; 김제남 공은 평소에 가난했다. 노씨 부인이 살림을 잘하고 이재에 밝아 점차 생활이 나아졌다. (후략)

29)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5년 6월 1일 무자, 6번째 기사; 선묘가 대군을 사랑하여 재산을 많이 주었다. 제안대군(齊安大君)도 재물이 풍족하였는데, 대비가 김제남에게 전체를 넘겨주어 대군을 위해 관리하도록 하였다.

30) 신명호, 앞의 책, 2015, 298쪽

31) 신명호, 앞의 책, 2015, 22쪽; 공주에 봉작되면서 교지를 받고, 봉작에 수반되는 토지와 녹봉을 받았으며 독립적인 생활 공간인 정명공주방 또한 사여 받았다.

32)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9년 10월 10일 신축, 3번째 기사

(李策)의 가대도 사여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유집』의 내용이 맞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인조반정 이후 노씨(盧氏)는 유배에서 풀려났다.³³⁾ 『시유집』 「四宜堂志」의 기록과 연결해 본다면, 환급된 명례궁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10년 동안 승려로 떠돌아다녔던 김제남의 손자 김천석(金天錫, 1601~1672)이 인목대비가 복위되자 다시 나타났는데,³⁴⁾ 한양 도성에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노씨와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후 장손으로서 김제남의 사당을 모시게 되었고, 사당은 명례궁에 설치되었을 것이며, 이것을 계기로 노씨와 함께 명례방의 집에서 같이 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부인(즉, 광산부부인 노씨: 필자 주)이 손자 김천석(金天錫)이 부임하는 곳에 따라간다고 하니, 지나는 각 고을로 하여금 특별히 우대하고 또 교자꾼을 주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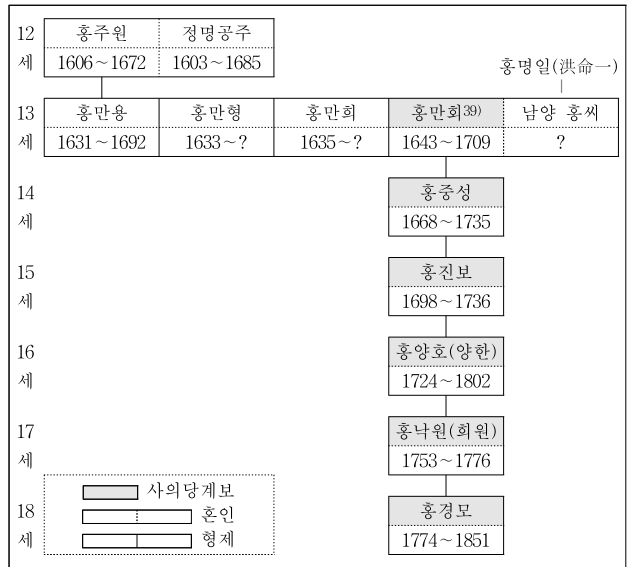
김천석이 1636년 홍산군수에 부임하면서 할머니 노씨(盧氏)와 함께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³⁵⁾ 명례궁은 인목대비가 사망한 1632년까지 인목대비의 소유였는데, 김천석과 노씨가 명례방의 집에서 거처하고 있었다면 인목대비의 승하 이후 4년간 명례방에서 살았을 것이고, 지방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1636년에 명례방 또한 정명공주의 소유가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에 정명공주 소유인 이책의 가택이 합쳐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후 정명공주의 아들 홍만회가 혼인하면서 분가할 시기가 되자, 정명공주는 이 땅을 홍만회에게 이급(移給)해 주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홍만회가 이곳에 사의당(四宜堂)을 건립하였다.

3-2. 四宜堂의 건립과 계승: 사의당 시절³⁶⁾

정명공주의 막내아들인 홍만회(洪萬恢, 1643~1709)가 1671년 사의당을 건립하였는데, 건물과 집터를 합하면 530칸의 규모였다.³⁷⁾ 홍만회는 사의당 건립 이후로도 만형인 홍만용과 함께 정명공주를 직접 모시기 위하여 정

명공주방에 계속해서 살았으며, 모친상을 마친 1687년에 사의당에 입주하여 살았다.³⁸⁾ 사의당은 홍만회가 살기 시작한 1687년 이후로 홍중성-홍진보-홍양호-홍낙원-홍경모까지 약 150년간 풍산 홍씨(豊山 洪氏) 가택으로써 사용되었다.

표 4. 풍산 홍씨(豊山 洪氏) 계보



사의당은 집 전체를 지칭하는 동시에 사랑채의 이름이기도 하다. 사의당이 건립된 후 38년이 지난 1708년, 사랑채인 사의당이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⁴⁰⁾ 중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해인 1709년에 홍만회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홍중성(洪重聖, 1668~1735)이 사의당을 이어받았다. 1735년과 1736년, 홍중성과 그의 아들 홍진보(洪鎭輔, 1698~1736)가 나란히 세상을 떠나면서 홍중성의 손자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사의당을 이어받게 되었으나, 그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다. 사의당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던 홍양호는 결국 1743년 사의당을 임시로 팔고 가족과 함께 충청도로 낙향하였다. 4년의 노력 끝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47년 도성으로 다시 올라와 사의당을 재매입하였다.

그 후 홍낙원(洪樂源, 1753~1776)이 1773년에 징회각을 중수하고, 상량문을 썼다.⁴¹⁾ 3년 후 홍낙원이 이른 나

33) 『인조실록』, 인조 1년 3월 14일 갑진, 6번째 기사;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의 부인을 제주(濟州)에서 맞아올 것을 명하였다.

34) 『인조실록』, 인조 3년 3월 8일 병진, 1번째 기사; 김천석은 연흥부원군의 손자이다. 온 가문이 죽임을 당할 때 죽인 한 사람이 몰래 김천석을 데리고 나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천석이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모두들 죽은 것으로 여겼다. 자전이 복위하자 김천석이 그제야 나왔다.

35) 『인조실록』, 인조 14년 2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36) 이하의 내용은 『운석외사』의 「四宜堂志」를 따랐다.

37)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6; 家舍壘埽爲五百三十間

38)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3; 府君以公主在堂家雖成而夫嘗異居公主教曰何不念眷集而長侍我乎對曰榦家之日長侍親之日短其何忍暫離乎與仲氏自川公共守一室者四十餘年至丁卯制闕而始入處杜門養閑…

39) 홍주원(洪柱元)과 정명공주에게는 7남 1녀가 있었는데 첫째 홍태망(洪台望), 다섯째 홍태량(洪台亮), 여섯째 홍태육(洪台六)이 요절하면서 사실상 둘째였던 정간 홍만용(洪萬容)이 첫째가 되었고, 이에 따라 홍만회(洪萬恢)가 막내아들 또는 넷째 아들로 혼용되면서 불려 왔다.

40)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11; 四宜堂癸坐丁向肅宗戊子重修

41)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12; 英宗癸巳重修而新之先府君撰上樑文

이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할아버지 홍양호와 함께 사의당에 남겨졌다. 홍양호를 많이 따랐던 홍경모는 홍양호가 타계한 1802년 사의당을 물려받았고, 1818년과 1824년 각각의 「四宜堂志」에 가문의 역사와 선조들이 물려준 사의당의 연혁을 기록하였다. 이때 기록한 『운석외사』의 「四宜堂志」를 통해 1824년까지는 풍산 홍씨 가택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홍경모는 사의당에 살았던 마지막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四宜堂志」 이후의 사의당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후의 역사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홍경모의 아들인 홍익주를 통해 홍경모 이후의 사의당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홍경모의 유일한 아들인 홍익주(洪翊周, 1797~?)는 1833년 진천현감을 지내게 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홍익주 이후로 홍우명(洪祐命, 1817~?), 홍승헌(洪承憲, 1854~1914)이 대대로 문백면 사양리 호계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다.⁴²⁾ 이를 통해 홍경모는 1846년까지는 도성에 거주하였을 것이고 홍경모 대 이후로 집안의 거주지가 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3. 홍경모 대 이후의 양상: 청국공사관 시절

한편, 1899년 명동2가에 청국공사관이 들어섰다. 그 땅은 당시 세도재상 중의 한 사람인 이경하(李景夏, 1811~1891)⁴³⁾의 집이었다. 1883년 서울로 부임한 상무총판 진수당(陳樹棠, 陳樹棠)⁴⁴⁾이 자신의 공서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세도재상 중의 한 사람인 이경하의 집을 ‘대국’의 위력으로 차지를 하게 되었고,⁴⁵⁾ 그 터가 청국공사관이었으며 지금의 중국대사관이다.

<그림 4>는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된 지도에 동일한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각 그림의 A가 앞서 추정했던 사의당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A의 아래길은 진고개길이다. B는 원구단을 표시한 것인데, 「수선전도」의 B는 원구단이 들어서기 전 남별궁의 자리이다.

手書於樑上

42)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내 「진천향토 문화백과: 홍승헌」

43) 이경하(李景夏, 1811~1891); 조선 말기의 무신으로 훈련대장 겸 좌포도대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그가 살았던 낙동의 집에서 수백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하였기 때문에 낙동장신 이경하, 염라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44) 1882년 11월에 체결된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청나라의 북양대신 직예총독 이홍장(李鴻章)이 파견한 상무총판(商務總辦)으로, 1883년 10월에 부임하여 1885년 9월 원세개 집권 이전까지 조선에 파견된 인물이다.

45) 「悲運에 싸인 京城中國領事館」, 동아일보, 1923.12.16,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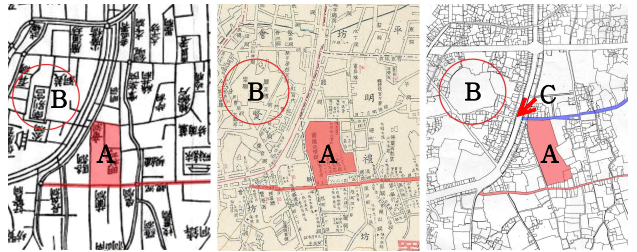


그림 4. 사의당의 위치
[좌측부터, 「수선전도」(서울역사박물관, 1861년대) / 「최신경성전도」(고려대박물관, 1907년대) / 「경기도경성부지적원도」(1912년)]

사의당은 건립 당시에는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530칸의 규모였는데, 후에 부지의 2/3가 여염집이 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다.⁴⁶⁾ 200여 칸 규모의 남별궁 터와 비교했을 때,⁴⁷⁾ 축소된 사의당의 터와 그 규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남별궁의 홍살문은 「경기도경성부지적원도」에 표시된 C에 위치하고 있었는데,⁴⁸⁾ <그림 5>의 홍살문 위치와 비교해 봤을 때 D의 위치를 사의당의 위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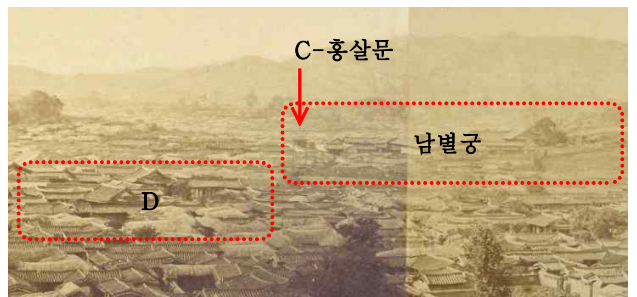


그림 5. 1897년 이전의 서울 (부분)
(화봉문고 경매에 나온 1989년경 서울의 파노라마 사진)

또한 정당의 상량문⁴⁹⁾에 따르면 사의당은 북향으로 대문이 있던 행랑채가 북쪽의 큰길과 면해 있었는데, <그림 5>의 홍살문 앞으로 보이는 길에 행랑채가 면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D의 위치가 사의당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한편, 「최신경성전도」에서는 사의당으로 추정한 부지와 같은 위치에 청국공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12년 「경기도경성부지적원도」에도 역시 같은 위치에 비슷한 크기의 부지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국

46)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6; 堡之三分二在門外爲奴僕之所居今爲閭里之家

47) 정정남, 「임진왜란 이후 남별궁의 공해적 역할과 그 공간 활용 -장서각 소장 「소공동홍고양가도형」·「사대부가배치도형」의 분석을 통하여-」, 건축역사연구, 18권, 4호, 2009, 47쪽

48) 정정남, 위의 글, 2009, 57쪽

49)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8; 連巷北之通衢, 且喜孔邇. (이종목 주: 거리 북쪽의 특이한 길거리에 이어져 있으니 매우 가까워서 더욱 기쁘다네.)

공사관, 지금의 중국대사관 자리가 사의당의 터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대사관은 이경하의 가택이었으므로 홍경모 이후의 사의당이 이경하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홍경모가 사의당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한 1846년 이후 1851년 홍경모가 사망하였고, 이후 사의당이 이경하에게 넘어간 경위는 정확하지 않지만 홍경모와 이경하의 관계에서 몇몇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경하(李景夏, 1811~1891)는 전주 이씨(全州 李氏) 광평대군과 17세손으로, 1863년 고종이 왕위에 올라 부친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훈련대장 겸 좌포도대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병인박해(丙寅迫害)가 1866년 대원군의 수족인 이경하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이때 이경하는 그가 살았던 낙동(駱洞)⁵⁰⁾의 집에서 수백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하였다. 낙동(駱洞)은 중구 회현동3가, 충무로1가, 명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명례궁과 사의당의 위치로 추정되었던 명례방의 명동2가와 겹치는 지역이다.

또한, 이경하와 홍경모의 사이에는 약하지만 풍양 조씨(豐壤 趙氏)의 친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⁵¹⁾ 이경하는 신정왕후 조씨(神貞王后 趙氏, 1808~1890)의 친척으로 갑신정변 때 조대비(신정왕후)와 명성황후, 당시 세자였던 순조 등을 아들인 이범진(李範晉, 1852~1911)의 집에 피난시키기도 했다. 홍경모의 처가 또한 풍양 조씨이며, 1845년 홍경모(洪敬謨, 1774~1851)와 신정왕후의 아버지인 조만영(趙萬永, 1776~1846)은 같이 기로소에 들어간 사이였다.⁵²⁾

홍경모와 이경하는 남이지만 시기상으로나 인척 관계로 봤을 때 미약하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의당이 이경하의 집으로 넘어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추측해 볼 여지는 남아 있다. 이후 이경하는 1882년 임오군란의 책임을 물어 귀양을 가게 되는데, 그 틈을 노려 진수당(陳樹棠)이 이경하의 집을 차지하면서, 청국공사관으로 역할 했으며, 현재는 중국대사관으로 사용된다.

50) 이경하가 살았던 낙동의 집은 후에 중국대사관이 되었으며, 본정 1정목(本町 1丁目) 15번지였다. 본정 1정목은 현 중구 충무로 1가의 일제강점기 명칭이며, 현재 중국대사관은 명동2가에 속해 있다.

51) 풍양 조씨 8세손인 화양공 조신(趙愼)에게는 조안평(趙安平)과 조개평(趙開平)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중 조안평의 후손으로는 풍양 조씨 23세손 신정왕후(神貞皇后)가 있으며, 이경하는 신정왕후의 고모[이복연(李復淵)의 처]의 손자이다. 조개평의 후손으로는 풍양 조씨 20세손 조홍진(趙弘鎭)이 있는데, 사위가 홍경모(洪敬謨)이다.

52) 이근선, 앞의 글, 2005.12, 111~112쪽; 홍경모는 1845년 72세 때 기사에 자신의 초상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초상을 남긴 사람은 신정왕후의 아버지인 조만영(趙萬永)이다. (중략) 관암의 기록을 보면 기사에 들어가더라도 임금의 명이 없으면 기신의 초상을 남길 수 없는데, 이때부터 조만영의 건의로 상의 명이 없어도 초상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4. 「四宜堂志」를 통한 四宜堂 공간 추정

4-1. 「四宜堂志」의 건축 공간 기술과 추론

「四宜堂志」堂宇第二의 구성은 크게 개요 부분과 사의당의 건물을 설명하는 영역으로 나뉘져 있으며, 그중 사의당에 대한 설명은 크게 정당(正堂) 영역과 사의당(四宜堂) 영역, 그리고 행랑(行廊)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四宜堂志」堂宇第二의 正堂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正堂은 정좌계향이며, 7량가 20칸 반이다. 온돌(溫堦)은 3칸, 통방(洞房)은 반 칸, 마루(廳事)는 6칸이며 앞뒤로 분합을 설치(設)하였다. 북퇴(北退)는 마루(軒)가 4칸이고 평난간을 갖쳤으며 한 칸은 온돌의 통방으로 지어 따랐다.⁵³⁾ (후략)

「四宜堂志」에서는 건물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온돌의 동쪽, 부엌의 남쪽’처럼 기준이 계속 바뀌는 방식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앞 건물의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다음 건물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한자들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連, 通, 接, 折, 隣, 附이다.

표 5. 「四宜堂志」에 사용된 상관관계를 표현한 용어 정의

한 자	해 석
連	한 건물 내에서, 다른 용도의 건축 공간이 연결됨 · 예시 1: 누의 북쪽으로 층루 5칸과 잇닿아 있다. · 예시 2: 정당의 階는 수약당의 階와 연결된다.
接	서로 다른 건물의 건축 공간이 연결됨 · 예시 1: 수약당 동쪽으로 정당 대청과 접해 있다. · 예시 2: 북하당 서쪽으로 서하당 대청과 접해 있다. · 예시 3: 정회각 서쪽 각문과 접해 있다.
通	서로 다른 건축 공간끼리, 외부 공간끼리 연결됨 · 예시 1: 판문을 지나 마당과 통한다. · 예시 2: 부엌 북쪽으로 문이 있어 밖으로 통한다. · 예시 3: 수약당 東廳은 정당의 南退軒과 통한다.
折	기준점에서 방향이 꺾여서 불거나 통해 있음 · 예시 1: 북하당 마루로부터 꺾여 서하당이 있다. · 예시 2: 동쪽으로 꺾여서 중문이 있다.
隣	건축 요소가 붙어 있음 · 예시 1: 수약당 서쪽으로 小軒이 이웃해 있다.
附	건축 요소가 붙어 있음 · 예시 1: 서하당에 익랑이 붙어 있다. · 예시 2: 사의당 남쪽으로 창이 붙어 있다. · 예시 3: 정회각 동쪽에 小樓가 붙어 있다.

한편, 해석에 앞서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四宜堂志」에는 廳事와 軒, 樓, 階와 塔, 門의 단어들 사용되는데, 각각은 특정 단어들과 조합되어 위치나 크기, 형태를 나타낸다. 廳事와 軒, 階와 塔의

53)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7; 正堂丁坐癸向堂之制七樑二十間半溫堦三間洞房半間廳事六間前後設分閣北退爲軒者四間具平欄而一間追作溫堦之洞房

표 6. 『운석외사』의 「四宜堂志」 중 堂宇第二

명칭	가구 형식	칸	위 치	向	명칭	가구 형식	칸	위 치	向
正堂	7량가	20칸 반	정당	丁坐癸向	(後堂)				
	① 온돌(溫堦) 3칸, 동방(洞房) 반 칸 ② 대청마루(廳事) 6칸: 앞뒤로 분합(分閤) 設 ③ 북퇴(北退). 마루(軒) 4칸: 평난간 갖춤 · 1칸은 온돌의 통방으로 변경 ④ 남퇴(南退). 마루 4칸: 앞에 중계(重階) 設 · 중계의 서쪽. 소각문(小角門) 有 - 수약당(守約堂) 계(階)와 連 - 계(階) 통해 사의당(四宜堂) 앞뜰(前庭)로 나감 ⑤ 온돌의 동쪽. 누(樓) 2칸 반, 누 아래는 부엌(廚) · 부엌의 남쪽. 문 有: 뒤뜰(後庭)로 通 ⑥ 누의 북쪽. 층루(層樓) 5칸과 連 · 밖에 설치한 평난간(平欄)과 사다리(梯)로 이동 · 누 아래. 행랑(廊) 2칸, 곳간(庫) 3칸								
守約堂	·	·	정당의 서쪽	·	四宜堂	5량가	11칸	사의당	癸坐丁向
	① 온돌 1칸 · 동쪽 창(東廳). 正堂의 남쪽 뒷마루와 通 · 서쪽 창(西廳) 바깥. 소헌(小軒) 1칸 有 ② 東. 正堂의 대청마루와 接: 장자(障子)로 막음 · 아래의 반은 대청마루의 북쪽 뒷마루와 通 ③ 西. 소헌이 隣 ④ 南. 화계(花階)가 있음 ⑤ 北. 대청마루 3칸 連: 분합(分閤)으로 두름 ⑥ 北西. 사의당의 남쪽 마당					① 온돌 3칸, 대청마루 4칸: 東南 3면에 분합 두름 ② 퇴칸에 마루 2칸 ③ 南. 창 附 ④ 西. 누 1칸 반, 누 아래는 부엌 · 부엌의 西. 담으로 감겨 있음 · 부엌의 東南. 계(階)가 둘러져 있음 · 동쪽계(東階)의 끝. 대청 귀퉁이(隅): 판장(板牆) 세움 · 판장(牆)의 동쪽 담(樹)에는 중문 有 · 아래에는 5층 석계(石階) 有 · 문 옆 작은 담 쌓음: 정회각의 서쪽 각문(角門) 接 ⑤ 西南. 화채(花砌) 有 ⑥ 東. 소나무 심은 계(松階) 有			
北下堂	·	·	정당의 북쪽	·	附翼廊	·	6칸	사의당 북쪽	·
	① 온돌 2칸, 대청마루 1칸 ② 西. 서하당의 대청과 接 ③ 南. 분합 설치 ④ 北. 판문(板門): 정회각 남쪽 계(階)와 通 ⑤ 온돌의 東 · 누 한 칸, 정당 층루 서쪽과 接 · 누 아래는 행랑 · 행랑의 北. 문이 있어 밖으로 通					① 6칸: 익랑으로써 가림 ② 東. 1칸, 출입문이 設: 문 밖. 층계(層階)가 設 ③ 곳간 1칸, 마구간(馬舍) 3칸, 측간(廁) 1칸			
西下堂	·	·	북하당 마루로부터 꺾여 남쪽	·	澄懷閣	5량가	6칸	사의당 동쪽	·
	① 온돌 2칸, 대청마루 1칸 ② 西. 분합 接 · 익랑(翼廊) 3칸 接, 담(垣)으로 둘러져 있음 ③ 北. 각문(角門) 有, 정회각 남쪽 계(階)와 通 ④ 온돌의 南. 누 1칸 · 누 아래. 부엌 · 누의 남쪽 끝. 각문(角門) 有, 정당과 接 ⑤ 정회각 남쪽 계(階)의 西門 · 사의당 마당과 通, 판장(板牆)으로 가림					① 온돌 2칸 ② 東. 小樓(소루)가 붙음, 이것은 서루(書樓) · 누의 남쪽. 벽 뒤 곡원(曲垣)으로 감아 가림 ③ 東. 들창(棚). 밖에는 화장실 문(廁門)과 連于 ④ 西南으로부터 대청 2칸: 그 끝. 온돌 1칸 · 온돌의 남쪽. 소각문 設, 사의당의 문 接 ⑤ 東. 작은 담(小垣) 서쪽 계(階)에는 소나무 두 그루 有 · 사의당 동쪽 계(階) 소나무에 시렁 없어 문 有			
後堂	·	·	정당 동루 뒤편	·	行廊	·	16칸	중문 뒤편	·
	① 온돌 2칸 · 온돌의 西南. 대청마루 2칸 接 · 온돌의 東. 부엌 1칸					① 가로로 一자 ② 東. 절구질(舂杵)하는 곳 2칸 ③ 北. 일각문(一角門)이 설치, 주자동(鑄字洞)과 通 ④ 3칸~12칸까지는 비복들 공간 ⑤ 다음 1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⑥ 다음 1칸은 손님(客)이 휴식을 취하는 마루			

사전적 의미는 모두 같지만, 본 문헌에서는 두 단어가 차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그 뜻을 추정해 보았다.

먼저, 廳事와 軒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마루이다. 廳事는 마루 혹은 대청으로 보았고, 軒은 퇴와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뒷마루 형식의 작은 마루로 해석하였다. 정당의 사례를 보면, 정당에는 廳事와 南退, 北退가 등장하는데, 廳事 6칸은 3×2의 형태로 구성된 대청마루로 볼 수

있으며, 南退와 北退가 대청마루의 남북으로 붙어 겹집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樓는 樓와 層樓로 사용되었으며, 정회각에는 書樓가 있어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門은 角門, 小角門, 小門, 中門, 出入門, 北小門, 板門이 등장하는데, 한자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문의 크기와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

階와 堦는 ‘섬돌 계’의 뜻을 갖는 한자이다. 본 문헌에서 階는 重階, 花階, 層階, 西階로 사용되었으며, 堦는 堦, 石堦, 松堦로 사용되었다. 특히 堦는 사의당에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되었다.

階는 섬돌 혹은 계단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곽순조(2000)의 논문에 따르면 階는 계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臺) 혹은 단(壇)과 유사한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⁵⁴⁾ 堦 또한 사전적으로는 階와 同字이기 때문에 堦와 階의 사용만으로 의미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다음 장에서 추정도와 함께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표 5>의 용어 정의를 적용하여 堂宇第二를 정리한 것이다.

4-2. 사의당의 공간 구성 추정안

『四宜堂志』에서는 正堂과 四宜堂 외에 기준이 되는 방향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四宜堂志』의 기록 순서에 따라 正堂·守約堂·北下堂·西下堂·翼廊·後堂은 정좌계향(丁坐癸向)인 정당 영역으로, 四宜堂·附翼廊·行廊은 계좌계향(癸坐丁向)인 사의당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외로 澄懷閣은 상량문을 통해 정좌계향(丁坐癸向)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정당 영역에는 사의당의 안채인 정당(正堂)이 가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정당은 7량가로 6칸의 마루에 남북으로 퇴칸이 붙어 대청으로 놓여 있으며, 대청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정당의 온돌방과 부엌, 서쪽에는 수약당(守約堂)의 온돌방과 마루가 붙어 대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정당의 북동쪽으로는 정당의 층루(層樓)가 잇닿아 있고, 북서쪽으로 북하당(北下堂)과 서하당(西下堂)이 붙어 ㄱ자 혹은 ㄷ자 형태를 이룬다. 서하당에 붙어 있는 3칸의 익랑(翼廊)과 정당 동쪽에 위치한 후당(後堂)이 ㄱ자 형태의 북측 양옆으로 붙어 날개 형태를 이루면서 안채 영역이 만들어지고 외부와 분리된다.

정당 영역 중 정당에서 살펴볼 점은, 樓의 구분인데, 추정도에서 樓와 層樓를 확인해 볼 수 있다. 樓는 정당에 2칸 반, 북하당과 서하당에 한 칸씩 있으며 사의당에 한 칸 반이 있다. 樓는 모두 1층을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의 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엌은 특성상 바닥이 지면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부엌의 상층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살려 중층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⁵⁾ 중층 공간으로 사용된 부엌을 樓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부엌은 주로 온돌방과 접해 있기 때문에 부엌의 윗부분을 온돌방의 다락 공간으로 사용했거나, 부엌의 물건이나 음식들을 저장해 두는 공간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層樓는 평면이 다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뜻하는 것으로,⁵⁶⁾ 정당에만 5칸이 있다. 1층은 행랑(廊) 2칸, 곳간(庫) 3칸으로 사용되고, 樓와 마찬가지로 2층의 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평난간(平欄)과 사다리(梯)가 설치되었다는 말로 추측해 봤을 때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는 누상주의 형태로 관망할 수 있는 용도였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수약당에서 살펴볼 특징은 온돌방에 붙어 있는 소헌(小軒) 한 칸이다. 小軒은 말 그대로 작은 마루를 뜻하지만, 앞에서 이미 軒을 작은 마루로 정의하였고, 退와 합쳐져 퇴마루(退軒)로 사용되듯이 小軒이 뜻하는 명확한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고종실록』⁵⁷⁾의 내용을 보면 명성황후의 침실이 있었던 경복궁 곤녕합(坤寧閣) 뒤편에 小軒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현재 쪽마루로 복원되어 있다. 따라서 수약당 온돌방의 서쪽에 위치한 小軒을 쪽마루로 보았다.



그림 6. 곤녕합 평면도 / 곤녕합 복원

북하당과 서하당은 서로 대칭의 형태를 이룬다. 마루가 서로 접해 있으며 북하당의 마루는 남쪽으로, 서하당의 마루는 서쪽으로 분합이 달려 있다. 마루를 중심으로 온돌방 두 칸과 누가 위치해 있으며, 서하당의 동쪽으로 익랑 3칸이 붙어 있는데 후당과 함께 ㄱ자의 안채에 날개체가 달린 형태를 이루고 있다. 북하당 누의 1층은 행랑인데 행랑의 북쪽에 문이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북하당과 서하당의 북쪽으로 각문이 있고 징회각의 남쪽계(階)와 연결되는데, 이를 통해 징회각이 정당 영역의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4) 곽순조, 「공궐운영을 통하여 본 조선전기 경복궁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4쪽; ‘섬’이란 말은 ‘계단’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밟고 올라서는 단이 형성된 것’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로 볼 수 있다.(김진규, 『훈몽자회 어휘연구』, 형설출판사, 1993)

55) 강인선,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 안채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60~61쪽

56)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호, 2006, 134쪽

57) 『고종실록』, 고종 광무 원년 11월 22일(양력), 2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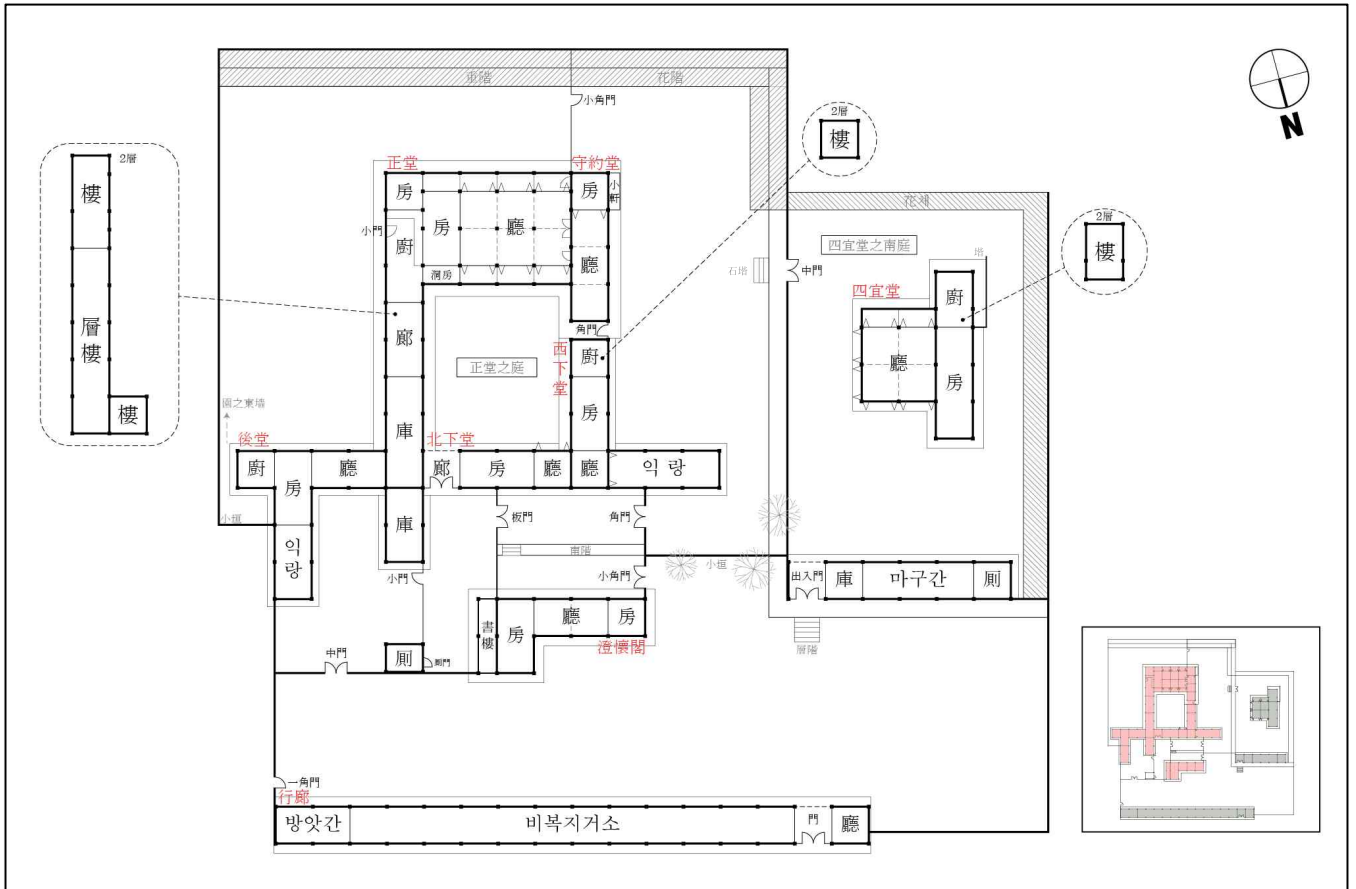


그림 7. 1824년 홍경모의 사의당 평면 추정도 (정좌계향: 적색, 계좌정향: 녹색으로 표시)

후당은 정당 층루의 뒤(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과 달리 기준이 되는 주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 후당은 온돌 2칸에 마루 2칸이 서남쪽으로 꺾여 있는 형태이며, 마루가 서쪽으로 정당의 층루 아래(庫廊)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곳간(庫) 2칸과 통한다.

온돌의 동쪽으로 부엌이 한 칸 있으며, 뒤편으로 작은 담(小垣)이 쌓여 있다. 이 담은 정원(園)의 동쪽 담으로 통하는데, 앞에서 정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의 남쪽 중계와 수약당의 화계로 연결되는 영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온돌의 북쪽 벽에 익랑 두 칸이 접해 있고, 꺾여서 동쪽으로 중문(中門)이 있다. 중문 밖에는 행랑이 있다. 이 문은 두 칸의 곳간(庫舍)으로 통하는데 북하당의 행랑으로 막혀 있다. 곳간의 끝 북쪽 소문(小門)은 측간이 한 칸 있는데 징회각 서루의 뒤쪽과 접해 있다.

여기서 중문(中門)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 중문과 통하는 곳간과 측간은 서쪽에 위치한 징회각과 연관되어 있다. 중문이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다면 징회각과의 연

결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중문의 방향보다 징회각과의 연결을 더 우선시하여 추정하였다.

정당 영역의 조경은 정당의 북쪽으로 정당 마당(正堂之庭)이 있고, 정당의 남쪽으로 중계(重階), 수약당의 남쪽으로는 화계(花階)가 있으며 작은 각문(小角門)으로 가로막혀 있다. 정당 마당은 북하당의 누와 서하당의 각문(角門)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 중계(重階)는 수약당의 남쪽에 있는 화계(花階)와 잇닿아 있어 화계와 같은 단의 형태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의당 영역이다. 사의당 영역은 계좌정향으로 남향이였으며, 사랑채인 사의당(四宜堂)이 동쪽에 단독 건물로 위치하고 있었다. 정당 영역의 남쪽으로 징회각(澄懷閣)이 있다.

사의당은 5량가로 4칸의 대청마루가 동쪽에 있고, 온돌방과 누가 서쪽에 있는 형태이다. 대청은 서쪽을 제외한 3면에 분합이 둘러져 있다. 마루의 서쪽에 위치한 누는 마찬가지로 1층이 부엌으로 사용되며, 서쪽으로는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동남쪽으로는 계(階)가 둘러져 있다. 따라서 누의 북쪽으로 온돌방 3칸이 붙어 있는 것으

로 추정하였다. 퇴칸 2칸이 있었는데, 남쪽으로 화계를 향한 창이 있었기 때문에 뒷마루가 남쪽에 있어 전망하는 장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부익의 옆으로 붙어 마루로 손님상을 내가기 위한 동선이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쪽에 있는 계(階)의 끝은 마루의 모퉁이이며, 판장(板牆)을 세웠는데, 앞서 누의 동남쪽에 있던 계(階)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장의 동쪽 담장에는 중문(中門)이 있고 아래에 5층 석계(石階)가 있는데, 같은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석계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누의 계(階)는 기단으로 추정하였다.⁵⁸⁾

사의당은 동쪽으로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계(松階)가 있고, 북쪽으로는 부익랑, 서남쪽으로는 화채(花砌, 화계)가 있다. 부익랑은 6칸으로 측간 1칸, 마구간 3칸, 곳간 1칸이 있었으며, 동쪽에 출입문(出入之門) 1칸이 있어 행랑 영역에서 사의당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부익랑 문밖으로 층계(層階)가 있는데, 앞의 5층 석계(石階)와 같은 계단의 의미로 추정된다. 사의당의 중문(中門) 가까이로 작은 담장(小垣)이 쌓여 있어 정회각의 서쪽 각문(角門)과 접해 있다.

정회각은 사의당의 동쪽에 위치한다. 정회각은 ㄱ자 형태의 5량가이며 누각이다. 총 6칸으로 마루가 2칸 있는데, 마루를 중심으로 온돌방 2칸은 동쪽에, 1칸은 서쪽에 위치한다. 동쪽에 위치한 온돌방의 동쪽으로 서루(書樓)가 있는데, 서루는 서재로 쓰거나 책을 보관하는 다락 형태의 공간으로 일반적인 樓의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작은 다락의 의미인 소루(小樓)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루의 남쪽 벽 뒤로 담장(曲垣)이 둘러져 가려 있으며, 온돌방의 동쪽 창(牖) 밖에는 측간의 문(廁門)과 잇닿아 있다.

서쪽에 있는 온돌방에는 남쪽으로 작은 각문(小角門)이 설치되어 있고, 사의당의 문(門)과 서로 접해 있다. 이 문은 위에서 언급한 '사의당의 중문(中門)', '정회각의 서쪽 각문(角門)'과 같은 문으로 짐작된다. 이 문들 사이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사의당의 동쪽 계(松階)에 있는 소나무와 함께 시령을 엮어 문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랑 영역은 노복들의 영역으로 사의당의 북쪽에 一자 형태로 16칸이 있어 큰길과 면해 있었다. 대문은 서쪽에 1칸이 있어 가택으로 출입이 가능했고, 서쪽에는 손님이 휴식을 취하는 마루 1칸이 있으며, 동쪽으로 비복들의 공간 9칸, 방앗간 2칸이 있다.

이처럼 건물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내용으로 사의당

의 공간 구성을 추정해 보았다. 하지만,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은 후당과 정회각의 위치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4-3. 사의당의 건축적 특징

남산의 북사면에 놓여 있던 사의당은 북에서 남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에 북향으로 놓인 집이었으며, 대문채는 지금의 명동길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의당은 큰 틀에서는 상류 주택의 모습을 따랐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안채인 정당과 사랑채인 사의당이 분리되어 있으며, 안채는 외부인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큰길에 위치하고 있던 대문을 통해 행랑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행랑 마당에서 집주인과 손님의 동선이 나뉘었다. 집주인은 행랑 마당에서 안채와 사랑채로 동선이 나뉘며 중문을 통해 사의당 영역과 정당 영역을 넘나들 수 있었다. 손님은 행랑 마당에서 사의당의 부익랑의 문을 통해 진입하여 사의당로 갈 수 있었으며, 하인들은 후당의 중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四宜堂志」에서는 사의당이 계승되는 과정에서 집의 규모가 축소되고 중수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변화가 담겨 있다. 그중 흥미로운 부분은 공간의 용도 변화였다.

홍만희(洪萬恢, 1643~1709)는 오랜 세월 안국동에 위치했던 정명공주방(貞明公主房)에 살았기 때문에 궁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사의당의 일부분에 궁가 관습을 본받은 형태로 집을 건립하였다. 궁가와 상류 주택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궁가에서 보이는 몇몇 특징들이 있다. 사의당은 궁가는 아니었지만 반빗간의 역할을 하는 후당과, 서루 등에서 궁가의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후당의 설명이다.

부익(廚房)을 나누어 지었는데, 궁가 관습을 본받은 것이었으나 지금은 폐(廢)하였으며 거처하는 사람(室處者)의 후당이다.⁵⁹⁾

일반적으로 궁집이나 대가에서 별도로 채를 짓고 반빗아치들이 음식을 장만하며, 빨래, 다듬질 등의 집안일을 하는 곳을 반빗간이라 정의하고 있다.⁶⁰⁾ 후당은 건립 당시 궁가의 관습을 본받아 부익으로 지어졌는데, 반빗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빗간은 안채로부터 독립되

58) 사의당의 기단(階)과 판장(板牆)을 두른 모습은 「동궐도」의 대조전의 모습과 유사하다.

59)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7; 別設廚房法乎宮家故也而今廢而室處者後堂也

60)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412쪽

어 있으며, 수장 공간도 포함⁶¹⁾하는데, 후당은 안채인 정당의 옆에 위치하여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고, 앞서 후당에서 공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온돌과 마루에 대한 변화이다.

당은 모두 중간에 온돌(棼)을 두어 겨울에 알맞게 하고, 그 마루(軒)를 열어 두어서 여름에 알맞게 하였다. 널찍한 마루(軒)는 온돌(棼)의 두 배인데, 옛 제도이고 모두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이 지금에 알맞다.⁶²⁾



그림 8. 추정도 (왼쪽: 온돌 16칸, 오른쪽: 마루 19칸, 헌 4칸 반)

사의당 추정도를 살펴보면, 건립 후 150년이 지났을 때의 추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칸수로는 여전히 마루가 온돌의 두 배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류 주택의 온돌과 마루의 구성 비율로 따져본다면 마루보다 온돌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행을 따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정당은 홍경모의 사의당에서도 여전히 마루의 수가 많으며, 사의당 또한 보수를 하였지만 온돌방보다 마루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유행은 바뀌었지만 사의당은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건물에는 유행을 따른 부분도 있다.

정회각은 옛것을 바꾸어 새로 고쳤고, 아래 두 개의 당(堂)은 마루(軒)를 덜고 온돌(棼)을 더하여 지금에 알맞게 따랐다.⁶³⁾

1773년 홍경모의 아버지 홍낙원은 정회각을 중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마루의 일부를 온돌로 바꾸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북하당과 서하당도 마루를 온돌로 바꾸었다.

정회각은 온돌방 3칸, 마루 2칸, 서루 한 칸으로 구성

61) 강인선·홍승재,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반빛간 연구」, 한국 주거학회논문집, 23권, 4호, 2012, 8쪽

62)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7; 堂皆棼乎中以宜冬豁其軒以宜夏而軒之敞倍於棼古制也而皆反乎是宜於今也; 이 부분은 해석 방식에 따라 ‘트인 마루가 온돌방보다 배가 되는 것은 옛 제도인데, 이제 모두 이와 반대로 하였으니 지금에 맞게 한 것이다.’라는 반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홍경모,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18세기 사대부가의 주거 문화』, 이종목 역, 휴머니스트, 2009, 57쪽)

63)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7; 澄懷閣之變舊改新下二堂之減軒添棼適今之宜也

되어 있으며, 북하당과 서하당은 온돌방 2칸, 마루 1칸, 부엌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곳 모두 마루보다 온돌방의 수가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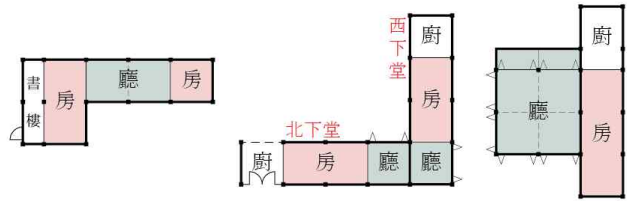


그림 9. 정회각 / 북하당, 서하당 / 사의당 추정도 (온돌: 적색, 마루: 녹색으로 표시)

그 때문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의당의 변화를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150년이 흐르면서 마루가 온돌로 바뀌는 것이 유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용자에 따른 용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사우(祠宇)를 세우지 않았는데 장남(長房)이 아니기 때문이며, 지금은 수약당(守約)의 마루(廳事)에서 사당방을 모시고 있다.⁶⁴⁾

조선시대의 주택은 가택의 가장 안쪽에 사우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립자인 홍만희가 막내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우를 세우지 않았다. 이후로 홍만희의 맏아들이 사의당을 이어받으면서 제사를 지낼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수약당의 마루를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의 대청과 수약당의 마루 사이에는 분합이 설치되어 공간을 분리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분합을 닫아 두어 사당방으로 사용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분합을 열어 정당의 넓은 대청 마루에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사의당은 17세기에 건립된 상류 주택으로, 부분적으로 궁가의 법도를 적용하였다. 「四宜堂志」를 통해 19세기 초의 사의당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었으며, 시대에 따른 변화를 담고 있어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의당에 대한 관심보다 홍경모와 그의 저서 「四宜堂志」 자체에 더 많은 시선이 쏟아졌기 때문에 사의당의 건축적인 추정보다 사의당의 형승, 서화, 기완 등이 주 대상이 되어 왔고, 평면 추정안은 주로 조정 요소를 배치

64) 「四宜堂志」의 堂宇第二 9-7; 不建祠宇序非長房也而今奉於守約之廳事

하기 위한 자료로만 제시되어 왔다. 이 연구는 「四宜堂志」를 통해 사의당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건축 공간 구성을 추정함으로써 사의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의당은 명례방에 위치하고 있던 인목대비의 친정집인 김제남의 집이었으나, 인목대비의 가례 후 명례궁으로 사용되면서 가대가 커졌다. 이후 명례궁의 부지는 사대부였던 풍산 홍씨와 이경하의 가택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는 청국공사관으로, 지금은 중국대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사의당의 이급 연혁은 왕실의 계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명례궁은 궁방의 가사(家舍)라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쉽게 일반인에게 넘어가기 힘들었고, 왕실의 인물들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셋째, 사의당은 한성부 남부에 위치해 있던 중정형 도시 주택이었다. 1671년 건립 당시, 온돌방보다 대청마루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조선중기 도시 주택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1800년대 조선후기에는 대청마루보다 온돌방의 수를 늘리는 식으로 바뀌나갔다. 또한, 집의 소유주에 따라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사의당을 복원·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四宜堂志」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19세기 초에 사용되었던 용어를 바탕으로 사의당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풀이에 따라 불안정하고 확실치 않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당의 위치를 추정함에 있어 역사적인 사실과 근대기 자료들은 모호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참고문헌

1. 홍경모, 「四宜堂志」(『始有集』), 1817
2. 홍경모, 「四宜堂志」(『耘石外史: 外史後編』, 冠巖全書), 1824
3. 홍경모,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18세기 사대부가의 주거 문화』, 이종목 역, 휴머니스트, 2009
4. 주남철, 『궁집』, 일지사, 2003
5.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6. 박순조, 「궁궐운영을 통하여 본 조선전기 경복궁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강인선,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 안채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 강인선·홍승재, 「조선 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반빗간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권, 4호, 2012
9. 신명호, 「17세기 초반 명례궁의 연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67집, 2013.12.
10. 신상섭,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의당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2호, 2011.6.
11. 유가현·성종상, 「조선후기의 문헌 『사의당지』에 나타난 고택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53집, 2011
12. 유가현·성종상, 「조선후기 사가원림의 해석과 재현 -남양 홍씨 사의당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3.
13.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한국학논집(현 동아시아 문화연구), 39집, 2005.12.
14.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5. 이종목, 「사의당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문화공간으로서의 한옥」, 『2012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 한옥, 미래 건축의 대안일 수 있는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2
16. 이종목,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한문학보, 19집, 2008
17.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호, 2006
18.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권, 3호, 2008
19. 신명호, 『화정, 정명공주』, 생각정거장, 2015
20.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 하늘재, 2012
21. 미상, 『계축일기: 인목대비 서궁에 간하다』, 조재현 역, 서해문집, 2003

접수(2017. 2. 15)

수정(1차: 2017. 4. 12)

게재확정(2017. 4. 20)